

■ 2017년도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심의 총평

- 일시 : 2017. 2. 1(수) 13:30~18:00
- 장소 : 아르코미술관 세미나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강경모, 김윤철, 민경오, 송현민, 이가영, 이용관, 이철우, 전지영, 정유란, 조성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사업은 지역의 특성화된 공연예술축제를 지원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육성과 지역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심의는 무용, 예술일반, 연극/뮤지컬, 음악, 전통예술 분야의 현장 전문가 10명이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1차·2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심의는 ‘기존 선정사업’과 ‘신규 신청사업’으로 진행되었다. 기존 선정사업은 사업계획심의 80%, 전년도 평가결과 20%를 반영했으며, 신규 신청사업은 100% 사업계획심으로 진행되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세운 심의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의 충실성 및 수월성, 둘째 계획의 실현가능성, 셋째 결과의 파급효과. 심의위원들은 이 기준에 맞춰 ‘기존 선정사업’에 신청한 64건과 ‘신규 신청사업’에 신청한 32건을 검토하며 다음의 철칙에 따라 심의에 임했다.

첫째, 계획의 충실성 및 수월성 면에서는 지원사업의 목적 부합성, 사업목표(프로그램, 참가규모, 관람객수 등), 세부 프로그램 구성력, 타 사업과의 구별되는 독창성 및 차별성, 안전대책 관련 계획 등을 살펴보았다.

둘째, 계획의 실현가능성 면에서는 축제의 운영인력(조직위, 집행위, 사무국, 예술감독, 스태프 등), 예산 계획 및 실행 현실성, 관객 개발을 위한 홍보·마케팅 계획을 살펴보았다.

셋째, 결과의 파급효과 면에서는 지역민 문화 향수권 기여도, 예술분야 발전 기여도, 지역 또는 국제적 교류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기존 선정사업’의 심의 과정 중 갑론을박이 있을 때는 전년도 평가를 참조하였다. 전년도 평가는 A부터 D등급으로 되어 있었고, 낙제점에 해당하는 F등급을 받은 축제도 있었다.

축제(祝祭)의 사전적 의미란 ‘축하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행사’를 뜻한다. 이러한 축제의 대표적 성격 중 하나는 공공성이다. 이것은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을 뜻한다. ‘기존 선정사업’과 ‘신규 신청사업’ 모두 축제가 지향하는 공공성과 지역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다. 특히 이러한 축제적 성격에 대한 지향성 없이 무리한 기획력과 실천 불가능한 프로그램 등을 계획하거나,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예술가와 출연 관련으로 사전 협약이 이뤄지지 않은 채 미확정 상태에서 지원한 축제 등은 부합하지 못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반면, 본 사업에 선정된 축제들은 몇 개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데 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으며, 한편 본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이 고수하는 기준점이 되기도 했다.

첫째, 꼼꼼히 작성된 심의 서류이다. 이는 심사과정에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주었고, 첨부된 언론 기사와 프로그램북 등은 증빙자료로 활용가치가 높았다. ‘기존 선정사업’과 ‘신규 신청사업’ 모두 서류 심의로 진행되는 가운데 특히 기존 선정사업 중 몇 개의 지원기관은 축제로 얻은 명성과 신뢰에 비하여 서류가 너무 부실하여 의심을 사기도 했고, ‘신규 신청사업’ 지원기관 중 사업목적·방향·추진계획에 맞지 않는 내용을 본 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파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너무나도 당당히 기재한 곳도 볼 수 있었다.

둘째, 수준 있는 예술적 완성도이다. 앞서 말했듯이 축제는 큰 규모의 행사에 속한다. 이렇게 축제라는 큰 그릇에 우후죽순 격으로 프로그램을 넣은 지원기관이 있었는가 하면, 특성화 가능성이 높은

지역 문화콘텐츠를 축제의 장에 잘 녹여 넣고 그것을 잘 실행할 수 있는 예술가 및 예술단체를 섭외하여 예술적 완성도와 축제가 지향해야 할 완성도를 잘 보여준 지원 기관이 있었다. 음악, 전통예술 분야에서는 전문가들이 모여 기량을 겨루는 경합 형식, 즉 콩쿠르나 경연대회 형식의 축제도 있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축제가 지향해야 할 공공성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배출된 인재가 향후 그 분야의 발전을 견인할 인재가 될 수 있다는 의견, 경합의 과정이 과거처럼 밀실에서 진행되기보다 많은 시민들이 관객이 되어 그 경연의 과정을 보고 한 예술인의 탄생을 지켜볼 수 있다는 의견 등을 바탕으로 심의하여 선정하기도 했다.

셋째, 해외 출연진 확정 부분이다. 축제에서의 출연진은 곧 프로그램의 기획과 구성에 직결되는 요소이다. 하지만 섭외 중도 아닌, 미정으로 해놓고 국제교류 및 해외와의 네트워크 강화라는 명목으로 지원한 기관들도 있었다. 국제 교류를 통하여 탄탄대로를 걸어온 축제의 경우 이 부분은 대부분 확정이나, 확정에 비슷한 섭외 중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넷째, 적절한 예산이다. 예산이란 축제는 물론 모든 문화예술의 질과 수준을 보장하는 조건이다. 심의 과정 중 심의위원들끼리 일명 ‘정직한 예산’ 이라고 부른, 즉 예산 가용의 목적과 대상에 맞게끔 설계된 탄탄한 예산안이 있었는가 하면, 출연진과 프로그램이 미정인 상태에서 예산안 역시 명료하지 못한 상태로 지원한 기관도 볼 수 있었다. 심의의 방향은 물론 전자에 보다 많은 점수를 배점했다.

다섯째, 지역 시민들의 참여에 대한 보장성이다. 축제의 장에 들어서는 순간, 시민은 축제를 이끌어가는 실행주체가 되거나 축제를 향유하고 소비하는 관객이 되기도 한다. 축제의 지속발전 가능성 역시 이러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서 나온다. 따라서 시민들의 참여를 토대로 한 개방된 프로그램을 기획한 축제, 시민들의 생활예술과 예술을 통한 동아리 활동을 독려하는 축제 등에 상대적으로 많은 점수를 주었다.

위와 같은 다섯 개의 기준은 10명의 심의위원들이 총 96건의 심의서류를 검토한 뒤에 만든, 한마디로 ‘상대적 기준’ 이라 할 수 있겠다. 앞으로 축제 관련 심의과정과 축제의 진행과정, 그리고 축제의 진행과정에서 진행될 자체 평가 및 모니터링에 반영되어야 할 ‘절대적 기준’ 이라고도 생각하는 바이다. ‘기존 선정사업’ 에서 선정된 51개의 축제는 이와 같은 이와 같은 기준을 원칙으로 삼아 지속발전 가능한 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바이며, ‘신규 신청사업’ 에 선정된 15개의 축제 역시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기존 선정사업’ 지원기관 중 전년도의 지원예산 비율이 불합리하게 책정된 부분은 갑론을박의 논의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했으며, ‘기존 선정사업’ 과 ‘신규 신청 사업’ 모두 지원신청액과 지원 결정액을 균형 있게 잡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적 안배를 위해 노력했음을 끝으로 밝힌다.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사업 심의위원 일동